

# 現代時調의 構造的 研究

## —현대시조의 3장 구조는 어떠한가—

임 종 찬\*

### 차 례

I. 서 론

II. 三章構造的 몰이해

III. 결 론

## I. 서 론

말을 전제로 했던 고시조는 고시조 창작원리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창 의 원리가 창사의 창작원리와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창법을 익힌 사람은 자연히 창사의 창작원리까지를 습득한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현대시조는 창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것은 현대시조를 창작하고자 하는 시조창작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현대시조의 창작원리에 대한 이론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간혹 있어도 극히 피상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현대시조가 시조 본령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우려를 의미한다.

자유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형태를 고수하는 데에 묘미가 있는 시라고 한

---

\* 부산대학교 국문과 교수

다면 정형시는 기존의 약속된 시형태를 고수하는 데에 묘미가 있는 시라고 하겠다.

현대시조가 정형시인 바에는 고시조대로의 정형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과연 현대시조는 시조로서의 약속된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현대시조 속에 나타난 三章構造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Ⅱ. 三章構造의 몰이해

현대시조라 해도 고시조가 가졌던 구조적 형태를 가짐으로써만 시조라고 하는 문학이 성립된다. 여기에 첫째로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시조를 이루는 통사적 원리의 측면이다.

고시조의 각장을 이루는 통사구조는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주 어 구 + 서술어구
- 2) 전 절 + 후 절
- 3) 위치어 + 文
- 4) 목적어구 + 서술어구

이와같은 통사구조를 작품을 통해 예시해보기로 한다.

- 1) ① 仙人橋 나린 물이 / 紫霞洞에 흘러드러  
 ② 半千年 王業이 / 물소릭 썩이로다  
 ③ 아회야 故國興亡을 / 물어 무슨헝리오  
 - 朱義植(瓶歌 390) -
- ④ 江湖에 봄이 드니 / 미친 興이 절노난다  
 ⑤ 濁醪溪邊에 / 錦鱗魚 按酒로다  
 ⑥ 이 몸이 閒暇히움도 / 亦君恩이샷다  
 - 孟思誠(瓶歌 55) -
- ⑦ 大棗불 불근 골에 / 밤은 어이 쓰드르며  
 ⑧ 베 빈 그르헤 / 계는 어이 누리논고

⑨ 술 익자 체장스 도라가니 / 아니 먹고 어이리

- 黃喜(詩歌 27) -

※번호와 빗금은 필자가 부가하였음

1)에 해당하는 장은 ① ② ⑥, 2)에 해당하는 장은 ④ ⑨, 3)에 해당하는 장은 ⑤ ⑦ ⑧, 4)에 해당하는 장은 ③이고 빗금친 부분이 경계가 되어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본다.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은 羣의 의미단락이 두 개라는 뜻을 수반한다. 이렇게 고시조에서는 한 장이 두 개의 의미단위로 나누어지고 하나의 의미단위는 2음보로 이룩되고 있다.

흔히 시조형식을 말할 때 3장 6구라고 하는데 6구란 두 개의 의미마디가 한 장을 이룬다는 것 즉, 2음보가 1구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두 개의 의미마디로 구분시키는 네 가지 형태의 통사구조는 의미의 연관성을 분명히 하자 함이고 그리하여 낭독이나 암기에 편리를 도모하자 함이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의미와 의미를 서로 대질리게 하여 앞과 뒤가 유사성으로 맞서거나 상반성으로 맞서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한 장안에서 일어나기도 또는 장과 장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앞 경우를 유사병렬구조, 뒷 경우를 상반병렬구조라 한다.<sup>1)</sup>

시조가 律文으로 이룩되었다는 것은 律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울성이란 소리걸의 부딪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의미와 의미가 대질림에서 비롯되는 유사병렬구조나 상반병렬구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고시조는 이와 같이 여섯 개의 의미 마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한 작품을 이루고 있다.

현대시조의 출발기를 장식한 시조시인들은 고시조의 이같은 속성을 살리려 하였다.

2) 가만히 오는비가  
락수저서 소리하니

오마지 안흔이가  
일도업시 기다려져

1) 임종찬 : 現代時調論(국학자료원, 1992), p. 229.

열릴듯 다친문으로  
눈이자조 가더라

- 최남선 '혼자안저서' 2) -

3) 봄비에 바람 치어

                  실 같이 휘날린다  
중일 두고 뿌리어도  
                  그칠 줄 모르노네  
묵은 발 새 옷 입으리니  
                  오실 대로 오시라

- 주요한 '봄비 1' 3) -

2) 3)은 앞서 말한 네 가지 형태의 통사구조를 지키고 있으며 이것의 가시화를 위해 6구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시조에서는 이같은 시조문학으로서의 속성을 무시하는 작품들이 자주 보인다.

- 4) ① 바람은 / 늘 북창어귀에 걸려있다  
                  - 류재하 '바람과 소녀와 하느님' 초장 -
  - ② 병이라면 / 어렵고 고통스런 병일밖에  
                  - 박시교 '빈 가슴이 둘' 초장 -
  - ③ 정말 너무 오래 잊은채 / 지냈구나  
                  - 조동화 '별을 보며' 초장 -
  - ④ 어둠은 / 조금씩 상하기 시작했고  
                  - 유재영 '무변기' 초장 -
  - ⑤ 아, / 마지막 강물같은 것이 / 풀리고  
                  - 유재영 '무변기' 중장 -
  - ⑥ 그냥 달려 / 이지러지고 구겨진 삶의 파편  
                  - 김연동 '신발' 중장 -
  - ⑦ 병어리 우산장수 주름 위로 / 더위가 올 때  
                  - 김정자 '하지기' 중장 -
- ※번호와 빗금은 필자가 부가하였음

앞에서 인용한 「현대시조 28인선」에서 뽑은 예들인데 3장 6구라는 의미의 시조형태에서 벗어나 있음을 본다. 이것은 또 한 장을 4음보로 끊어읽기에 어색하도록 만들고 있다. 예를 하나만(⑤) 들어보기로 한다.

2) 최남선 : 백팔번뇌(한성도서출판사, 1926), p. 109

3) 주요한 : 봉사꽃(세계서원, 1930), p. 1.

- ㉔ 아, 마지막 강물같은것이 풀리고
- ㉕ 아마지막 강물같은 것이 풀리고

㉔로 읽는다면 우리시에 한 음절이 한 음보를 이루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도 어긋나 있지만 1음절도 한 음보 6음절도 한 음보가 한 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음수의 편차가 너무 커지게 된다.

㉕로 읽어봐도 '것'이라는 불완전명사를 단독으로 음보화하기에는 그야말로 불완전한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생각해서인지 현대시조 초기시인들의 작품에는 음보를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표기가 있었던 것도 유의할만 하다.

- 5) 수집어 수집어서 다투는 연분홍이  
부끄러 부끄러서 바위틈에 숨어피다  
그나마 남이볼세라 고대지고 말더라  
- 이은상 '진달래' 4) -

- 6) 이즐어 여원저달 밤새껏 갔것마는  
반쪽난 몸을끌고 팔리갈수 있었으랴  
한낮이 기운하늘에 애처로이 떠있네  
- 오신혜 '반달' 5) -

앞의 2)도 그렇지만 4) 5)은 모두 음보식 표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시조가 음보율로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조를 낭독할 때의 律讀을 고려한 표기라고 보여진다.

둘째로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종장의 기능하는 바다.

고시조의 종장은 가)닫혀진 마감 나)열려진 마감으로 작품이 끝나도록 유도하는 구실을 해 왔다.<sup>6)</sup> 가)의 경우에는 두 경우가 있는데 ㉑종장은 초·중장을 종합하여 여기에다 작중화자의 새로운 정보를 첨가시키는 경우이고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 7) 말업슨 靑山이오 態 업슨 流水|로다  
갑업슨 淸風과 임즈 업슨 明月|로다

4) 이은상 : 노산시조집(한성도서, 1932), p. 32

5) 오신혜 : 望洋亭(대동출판사, 1935), p. 45

6) 임종찬 : 현대시조론(국학자료원, 1992), p. 181.

이듬에 일 업슨 다품이 分別업사 늑그리라  
- 成渾(瓶歌 106) -

7)의 종장은 초·중장의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여 종합한 형태다. 다시 말하면 초·중장의 정보를 종합하여 여기서 다시 작중화자의 의중(결심)을 첨가시켜서 시조를 마감하였다. 이런 경우는 논리적으로 논의를 끝맺었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연장할 수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적 논의를 더 연장한다면 더 큰 논리적 결론으로 마감되어야 하므로 시적논의는 상당히 길어져야 할 것이다. 곧 3장으로서는 가능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 초·중장은 종장의 예증이 되고 있고 그리하여 종장은 논리적 결론으로 시적 마감을 하는 경우다.

8) 눈마즈 휘여진 티를 뒤라서 굶다던고  
구불 節이면 눈속의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은 너 쉰인가 ㅎ노라  
- 元天錫(瓶歌 625) -

8)의 종장은 초·중장의 구체적 사실을 방증으로 삼아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경우다. 이때의 종장은 초·중장의 결론적 해석이라 하겠고 다르게 말하면 초장·중장이 종장의 예증이 되어 있다고도 하겠다. 역시 논리적으로 마감한 경우가 되므로 더이상 시적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나)의 경우는 시적 논의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은 경우다.

9) 오늘은 비 기거나 샷갓세 흥외 메고  
비잠방 거두치고 큰 눈을 다 뒀後에  
쇠다가 點心에 濁酒 먹고 시논으로 가리라  
- 金兌錫(瓶歌 367) -

9)는 초장의 정보가 중장으로 중장의 정보가 다시 종장으로 이어져가면서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곧 끝이 무한정으로 열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열린진 마감의 작품이다. 이 형태는 시조가 3장이어야 한다는 형식적 강요가 없다면 더 연장해서 시적담화가 계속될 수 있는 형태의 작품이다. 또 고시조에서는 열린 마감이 있긴 하되 아주 희귀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좀 색다른 경

우도 있다.

- 10) 뵈흔 길고길고 뵈흔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만코 하고하고  
 어딤선 외기러기는 울고울고 가느니  
 - 尹善道(瓶歌 73) -

10)은 9)와 좀 다른 형태다. 9)는 초장의 정보가 중장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중장으로 연결되어가는 형태, 즉 시적담화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형태로서 각 장과 장 사이에는 연결성(cohesion)이 분명하게 內在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9)는 각장이 독립되어 있어서 한 작품으로서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초장의 정보와 중장의 정보 또 중장의 정보와 중장의 정보 사이에는 연결성이 없어서 이 사이에 많은 설명이 첨가되어야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미상의 틈이 크게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때, 고시조는 가)달혀진 마감과 나)열려진 마감으로 한 작품을 완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의 경우에는 ㉠중장은 초·중장을 종합하여 여기에다 작중화자의 새로운 정보를 첨가시키는 경우 ㉡초·중장은 논리적 결론에 해당하는 중장의 예증이 되어 중장으로 하여금 논리적 결론으로 시적마감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의 경우에는 ㉠초장의 정보가 중장으로, 중장의 정보가 다시 중장으로 연결되어 가는 열려진 마감과 ㉡각 장은 독립되어 있어서 장과 장끼리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유기적 연결을 이루려면 각장 사이에 많은 설명이 첨가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경우든 중장은 시적 논의를 확실하게 마감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시조 중에는 중장이 아주 색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작품이 보인다.

- 11) 열기(熱氣)란 뜨거울수록  
 식기도 쉬운건가?  
 산야(山野)에 작열(灼熱)하던  
 함성(喊聲)은 사라지고  
 쫓았던 불벌 더위가  
 무릎 꿇는 길목에는

참새떼 쪼아 먹던  
 풍요(豊饒)가 건힌 산야(山野)  
 삶이란 앓기는 것  
 공복(空腹)의 하늘에는  
 훑날린 역새씨 하나  
 어디론지 가고 있다

- 김진문 '가을의 길목에서' 첫 수 둘째 수<sup>7)</sup> -

11)의 첫수에서는 종장이 마무리 기능을 포기하고 둘째 수의 초장에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 이것은 고시조 뿐 아니라 여태의 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이다. 連作時調라고 함은 각각의 수는 독립적 기능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융합하여 한 작품을 이룰 때를 말한다. 그런데 11)의 첫 수와 둘째 수를 떼어 놓고 보면 시조작품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음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

- 12) 혼해빠진 김해 김씨金海金氏 혹은 밀양 박씨密陽朴氏의  
 혼해빠진 혼해빠진 혼해빠진 사랑이지만  
 한 오리 벌려만 놓은 물길 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이사 가을날의 반짝이는 유리잔 속에  
 몇 개의 충동 혹은 몇 개의 사유思惟를 놓고  
 한 목숨 빛깔도 환히 홍옥紅玉으로 앓았던 것.

2

그대 살던 순수의 땅은 여기서는 아주 멀다  
 무작정 평강平岡이 울던 관문關門도 꺾문이지만  
 그 산속 은전의 햇벌도 그냥 너무 멀기만 하다.

- 박기섭 '온달에게' 전문<sup>8)</sup> -

12)는 첫수, 둘째 수가 결합함으로써 한 수가 되고 있음을 숫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12)는 외형상으로는 세 수가 한 편이 되고 있는 작품이지만 내

7) 경남시조문학회 : 남모를 아픔 달고 잠쟁날의 주변에는(도서출판 경남, 1993), p. 52

8) 이우걸 · 장석주편 : 현대시조28인선(청하, 1993), p. 55

용상으로는 두 수가 한 편이 되는 시조인 셈이다. 11) 12)는 여태 首라는 개념과 종장이라는 개념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시인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인 셈이다.

이와 같이 앞수의 종장이 뒷수의 초장과 직접 연관을 맺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뒷수와 의 연관을 위한 기능어도 아니고 그 자체의 마감을 위한 종장도 아닌 경우도 있다.

13) 끝없는 사막이려니  
발목 빠지는 砂丘

무리새 빙빙 돌며  
死體를 찾을 무렵

앞서간 발자국 짚어  
가능하는 向方은?

- 이인수 '앞산에서' 일부9) -

14) 앙상히 뼈만 남은  
얼푸른 꼭두새벽

그늘진 온데간데  
마구 막 퍼지르고

환하게 봄을 타낸다  
널어내고 끝내는.

- 조창환 '진달래' 10) -

시조에 있어서의 종장이란 장으로서의 끝이라는 의미와 시적 논의를 마감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인데 13) 14)의 종장은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가.

앞서 종장은 열려진 마음으로 작품이 끝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할 때가 있다고 했지만 무한점으로서의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가령 9)에서 보면 형식적 제약만 없다면 종장 다음에 전개될 수 있는 것은 노동하기 위한 다른 국면이어야 한다. 10)에서 보면 길고 멀고 많고 하고를 느끼게 하는 다른 사물의 동

9) 현대시조(현대시조사, 1994가을호), p. 52

10) 시조문학(시조문학사, 1994 봄호), p. 64

작이 더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3) 14)의 종장 다음에는 어떠한 시적 논의가 와야 한다는 한정이 없어 막막하다.

시조는 어느 시점에서 의미의 집합을 분명하게 이루어냄으로써 시조로서의 독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 점이 자유시와의 변별성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시조로서의 확보된 특징을 부수어 버린다면 시조로서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 Ⅲ. 결 론

이상에서 논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고시조는 각 장을 이루고 있는 통사구조가 네 가지 유형, 즉 1)주어구+서술어구, 2)전절+후절, 3)위치어+文, 4)목적어구+서술어구에 국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네 유형 모두가 두 개의 의미로 배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정된 구조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를 두고 고시조는 3장 6구 형식의 시가라 하였는데, 현대시조는 이와 같은 통사구조를 깨뜨리는 작품들이 많아서 고시조의 안정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하겠다.

고시조의 종장은 가)닫혀진 마감, 나)열려진 마감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시적 논의를 확실하게 마감하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열어 놓고 마감하느냐의 차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시조의 종장은 마무리로서의 종장이 아니라 다음首诗의 초장과의 연관성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고시조대로의 논의의 마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장 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현대시조 중에는 고시조가 가졌던 三章構造의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시조문학의 형태적 미학을 파괴하는 경우가 되므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형시의 생명은 전통적으로 고수되어온 형태적 특징을 고수하는데 의의를 가지는 문학형태라고 한다면 시조도 마땅히 시조의 형태적 특징을 간직할 때만이 시조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